

2010 문화유산 콘텐츠 공모전 작품소개서 (스토리텔링)

응모자명	박 경 민		
작품명	줄어름 타기 인생		
한 줄 이야기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 성숙해지는 줄타기 소녀, 소년의 이야기와 동시에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딛고 우리 유산 줄타기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		
소재	안성 남사당 놀이 - 어름(줄타기)		
주제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지키고 보존하자.		
기획의도	우리 문화(재)와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과 유형, 무형의 문화재 보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함.		
등장인물			
등장인물명 1	정선		
주인공. 여자이면서 자존심이 세지만 마음은 여림. 사춘기를 접하면서 재광에게 마음이 생김.			
등장인물명 2	재광		
주인공. 정선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라이벌. 사춘기를 접하면서 친구인 정선을 여자로 보게 됨.			
등장인물명 3	줄 할아버지		
정선과 재광에게 줄타기 비법을 전수해주지만 안타깝게 죽는다.			
등장인물명 4	정선의 엄마		
남편을 일찍 여윈 과부이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정선이를 제일 아끼는 사람. 후에 일본군에 의해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끌려간다.			
등장인물명 5	선미		
정선이와 재광이 사이에서 나온 딸. 정선의 어릴 적처럼 자존심과 고집이 세며 똘망똘망하다.			
줄거리			
'줄어름 타기 인생' 은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 성숙해가는 줄타기 소녀, 소년의 성장 이야기다. 동시에 일제강점기라는 민족의 아픈 역사를 딛고 우리 문화 유산인 줄타기(어름)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문화유산 목록			
번호	문화유산명	소재지	내용
1	안성 남사당 놀이	경기 안성시 석정동 20-1	경기도 안성의 전통 민속 놀이로서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남사당놀이는 접시돌리기·재주넘기·줄타기·풍물놀이 등 종합적인 연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작 품 본 문

재광이가 정선이와 실력도 비슷한 주제에 쌍홍잡이를 선보였다.

“봐라. 이게 바로 아무나 못하는 쌍홍잡이다. 넌 이거 할 수 있냐?”

정선이가 붉어진 얼굴을 감추려 등을 돌리며 말했다.

“나도 줄 할아버지한테 배우면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어디 두고봐라!”

자존심이 상해 곧바로 장터로 뛰어가다 그만 돌부리에 넘어졌다. 무릎에서 피가 나고 창피해도 뒤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다음날이었다. 한여름 장마가 드디어 시작 됐다.

‘오늘은 재광이 그놈이 없겠지?’

하도 많이 쓰다 보니 닳을 대로 닳아버린 낡은 줄에 조심하 몸을 맡겼다.

‘이렇게 했던가? 아닌 것 같았는데...어?어?어!!’

중심을 잃고 땅바닥 아래로 추락했다. 그리 높지 않은 높이였지만, 17살 소녀의 몸으론 아픔을 견디기 힘들었다. 무엇보다 무릎에서 흐르는 피가 빗물과 섞여 더 쓰라렸다.

“아얏! 에이 무릎에 웬 또 피람? 이거 원 줄타기고 뭐고 얼른 들어가 봐야겠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정선은 옷을 훌러덩 벗고 목간통에서 피를 씻었지만 흉터가 꽤 깊었다. 옷을 입고 있는데 어름의 엄마가 흉터를 보고 놀라 물었다.

“이 가시나가 어딜 싸돌아 댕겨서 또 왜 이리 피가 터졌어!”

“아 몰라도 돼! 그냥 줄타기 하다 쫘 미끄러진 거 가지고 뭘 그리 호들갑이야!”

“이년이! 예휴.. 엄마가 너 때문에 한시도 마음 놓고 쉴 날이 없어!”

한편으론 까진 무릎이 한번 더 까져서 아프긴 했지만 쌍홍잡이를 쉽게 하는 재광이가 부럽기도 했다. 비는 언제 내렸냐는 듯 하늘은 맑았고, 무지개가 잡혔다.

아침 해가 정선이네 집을 뜨겁게 내리 쏘았다.

“정선아~줄타기 하러 안가냐?”

밖에서 재광이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오늘은 좀 안 될 듯 싶은데...”

“왜? 어..어! 무릎이 또 까였네? 혹시 너 어제 줄타기 하러갔었어? 빗속에 줄타기 하러 뛰어간 게 너였어? 에이..안되겠다. 오늘 내가 너한테 쌍홍잡이 가르쳐 줄라고 온건데.. 몸조리나 잘해라.”

정선은 당황했다. 어제 그녀가 무얼 하기 위해 그 가녀린 다리를 다쳤던가. 주저 없이 옷을 갈아입고 줄타기를 하러 나갔다. 마침 줄타기 위에서 아슬아슬 줄을 넘고 있는 줄 할아버지를 만났다. 역시 많이 먹은 나이만큼 실력 또한 대단했다. 관중들이 보기에도 떨어질 듯 말듯, 그러나 약을 올리는 듯 다시 세차게 공중으로 부웅 하고 떠서 가느다란 줄에 안전하게 착지하는 것을 보면 아찔하기 그지없다. 한참을 넋 놓고 바라보던 정선과 재광은 줄 할아버지의 줄타기가 끝나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할아버지에게 뛰어갔다.

“와~할아버지! 역시 할아버지네요. 저도 잘 타기 위해 열심히 노력 해야겠어요!”

재광이가 오자마자 감탄사를 내뱉는다.



“허허, 녀석 이제 쌍홍잡이는 잘 탈 수 있니?”

“그럼요! 전 항상 잘했다고요! 아 그나저나 쌍홍잡이는 정선이가 아직 못 배웠어요. 오늘은 정선이를 가르쳐주세요.”

사람들이 뜰해질 무렵 정선이는 조심스레 줄 가장자리에 올라탔다. 그다지 높은 위치도 아니면서 어제 일 때문에 괜시리 손에 땀이 쥐어졌다. 과연 오늘은 떨어지지 않고 잘 할 수 있을까, 혹시나 재광이가 자신보다 더 잘 되고 있는지 두려움이 엄습했다.

첫 발을 디뎠다. 마치 새로운 세상에 나아가듯 저 아래에 지나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1m남짓한 높이에서 바라보니 그 사람들과 다른 세상에 있는 듯 했다. 줄타기를 하는 순간만큼은 너무 짜릿한 마음에 모든 걱정을 잊게 해주었다.

그 순간이었다. 너무 심취한 나머지 정선이가 발을 떼어 쌍홍잡이를 하기도 전에 발이 빠듯하며 추락한 것은 순식간이었다. 문득 재광이는 정선이의 다친 무릎이 생각났다.

‘이러다간 다리에 금이 간다고!’

재광은 정선을 온몸으로 받았고, 곧이어 폭-소리와 함께 그 둘은 땅바닥으로 넘어졌다.

“저런! 줄타기를 할 때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생각도 좋지만 프로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줄에 집중을 해야지 어디다 집중을 한 것이냐!”

곧바로 줄 할아버지의 호통이 이어졌다. 정선이는 마음이 아팠다. 자신이 다친 것 보다 줄타기의 정신을 더 중요시 여기는 할아버지가 야속했다. 결국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정선이와 재광이는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온 재광이는 정선이가 걱정되었다. 비록 받아주었지만 17살이라고 해봐야 아직은 잔 근육뿐이고, 뻘뻘 마른 몸으로 정선이를 구하기란 힘들었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불그스레 해졌다. 그 짧은 찰나에 정선의 치마 속을 본의 아니게 보게되었던 것 이다.

‘오늘은 속치마를 안 입고 왔나..참 말만 열일곱이지 이거 원 갓난 애기도 아니고..’

그날 밤은 무척이나 더웠다. 아무리 부채질을 해도 성가신 모기가 날아들었고, 시원한 수박도 더위를 식힐 순 없었다. 그는 무작정 원두막으로 달려갔다. 더울 땐 그 곳 만큼 시원한 곳이 없었다. 그가 달려갔을 때, 누군가 이미 원두막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정선이었다.

“어?”

“어?”

“정선이? 니가 여기 왜있냐? 다친 데는 안 아프고?”

“응..아깐 좀 미안했다..괜히 줄 탄다고 고집만 피우고..”

“상관없어. 우린 어차피 줄타기로 평생 벌어먹고 살 텐데 그거 무섭다고 안타면 우린 어떻게 되냐?”

“하긴..에휴~오늘 많이 덥지? 너도 여기 온 걸 보니깐 많이 더웠나보네.”

남들이 듣기엔 쓸데없고 보잘 것 없는 시시한 대화였지만, 그날 밤 둘에겐 10대 사춘기에 한발 더 나아간 계기가 되었다. 어쩌면 좀 더 성숙해 졌을지도 모른다.

정선이가 다친 뒤로 며칠간은 줄타기를 못했지만 다 나은 뒤로 꾸준히 연습해서 제법 프로다운 자세가 갖춰졌다. 처음 부채를 잡던 어눌한 손이 지금은 마치 그것과 한 몸이 된 듯 자유자재로 움직였고, 추임새 또한 중심을 잡으면서 맛깔나게 잘했다. 하나 둘 인파가 모여들면서 장터의 마당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소문이 이런 결과로 나오게 한 것이다.

“이젠 정선이도 이 할애비가 처음 너를 만난 날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좋아졌구나!조금만 더 잘



하면 할아버지를 따라잡겠구나 허허!”

“에이 할아버지도 참! 절 이렇게 잘 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 덕분인데요-. 아직 따라 가려면 한참이나 멀었어요.”

“그것보다 좋은 소식이 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더니 요번엔 한국 민속촌에서 행사가 열린다. 주어진 시간은 나흘 뒤니 열심히 해보자꾸나!”

정선이와 재광이의 눈에 설렘이 가득했다. 여지껏 줄타기라곤 마당에서 밖엔 해 본 적이 없는 데 한국 민속촌이라니! 기분이 절로 좋아졌다. 정선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엄마에게 달려갔다.

“엄마! 엄마!”

“왜 또?”

“우리 이번에 줄타기 한국 민속촌으로 나흘 뒤에 떠난데!”

“아이구 우리 정선이가 민속촌 까지 가서 한단 말이지? 이거 경사아냐?! 잠시만,오늘은 진수성찬을 차려야겠구나! 정선이는 어여 가서 쉬어라!”

그날 밤은 정선이도 재광이도 잠을 쉽게 이룰 수 없었다. 한국 민속촌에 가던 바로 전 날 또한.

드디어 행사 당일이었다. 줄 할아버지와 함께 간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엄청난 사람들로 북적대며 줄 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를 만큼 한 발자국 내딛기도 어려웠다. 곳곳에 풍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이스케끼를 파는 사람도 있었고, 주변에는 부채질을 하며 장기를 두는 노인들도 많았다.

“할아버지, 우리가 정말 잘 할 수 있을까요?”

떨리는 마음에 재광이가 말했다.

“고럼 고럼-암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데! 사람들 앞에 있어서 떨리는 마음보다 즐겨보자는 생각을 가져라! 오늘 하루는 신나게 놀기만 하면 된다.”

풍물놀이가 끝나고 드디어 줄타기 순서가 되었다. 그 순간 정선은 모든 것을 잊고 줄타기에 집중했다. 현란한 부채질로 관중을 사로잡았고, 추임새도 제법 넣는 것이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할만 했다. 정선은 긴장이 점점 사라지자 타령중에 새타령의 이야기를 전개했다. 사람들 모두가 흥미있어 했고, 더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다. 드디어 정선이 제일 많이 다녔던 부분인 쌍홍잡이 부분이였다.

‘그때 줄 할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몸을 맡기자!’

줄 위로 발돋움을 해 부웅 뜬 후 아슬아슬 다리를 줄 아래로 내려놓았다. 어우!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박수소리를 들었다. 엉덩이에 힘을 주고 반동을 이용해 다시 한번 줄 위로 발을 올려놓았다. 그 뒤에도 외홍잡이를 선보였다. 한 다리에 힘을 주어 줄을 던고 다른 한 다리는 들고 앉았다, 일어 섰다를 반복했다. 드디어 해낸 것이다!

그녀가 끝나고 나서 재광의 줄타기가 이어졌다. 재광은 사람을 잘도 알뜰게 속였다. 줄 위로 뒹 다음 몸에 힘을 빼더니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떨어질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고서 발이 땅에 가까워 졌을 때 한손으로 줄을 잡고 다시 위로 올라왔다.

“와, 정말 제가 알던 재광이가 맞을까요? 정말 잘하는데요?”

“재광이 저녀석이 일을 낼 줄 알았다. 진작에 재능이 있었어.”

“정말요? 지금도 잘하는데..”

“지금도 잘하지만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너랑 차이가 많이 났을 듯 싶구나.”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애초에 재광이는 정선이보다 줄타기를 잘했다. 지금

그녀를 가르치는 할아버지도 원래 배우고 있던 제자인 재광이가 정선에게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보길래 중간에 합류한 것이다. 따지고 보면 재광이가 정선보다 잘 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일 수도 있었다.

줄타기가 끝나기 무섭게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길을 내주어 그들이 나갈 수 있게 해주었다. 민속촌에서 장터로 돌아오는 길에 그 둘의 환호는 그칠 줄 몰랐다. 그날 밤, 정선이가 재광 이네 집을 두드렸다.

“등목 안할래? 날도 더운데 말야.”

“등목? 이 밤에?”

“아 그래 싫음 말고.”

“아냐 아냐, 가자!”

밤이라 그런지 더위도 사람은 지나다니지 않았다.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누구 할 것 없이 옷을 훌쩍 벗고 놀았다. 정선은 이 밤에 그녀의 몸이 보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선의 착각은 빗나갔다. 재광의 위치에서 달빛은 정선을 비쳤고, 희미한 달빛 속에서 그녀의 몸매가 드러났다. 여지껏 항상 봐왔던 일이지만 어느새부턴가 그는 정선을 여자로 보게 되었다.

“저..저기..너 여자가 옷을 벗고 놀면 어떡해!”

“뭐라고? 너 왜그래? 우리 맨날 이러고 놀았으면서! 그리고 거기서 여자가 왜 나와!

그럼 넌 남잔데 왜 옷 벗어?!”

아뿔싸, 재광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대답에 당황했다. 한동안 계속 노는데도 애써 보지 않으려 해도 계속 보였다. 정선과 헤어진 후 재광은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항상 보던 애가 왜지? 개가 뭐가 이쁘다고 예잇!’

혼자 자기 머리를 때렸다. 다음부터 정선이와 등목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며칠 동안 줄타기를 연습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다. 줄 할아버지가 줄타기를 가르쳐줄 때면 또 다른 세계가 무궁무진하게 펼쳐져있는 것 같았다. 그동안 새로운 방법들도 많이 익혔다. 양홍잡이, 돛불이기 등등 한창 연습이 무르익어 갈 즈음 이었다.

“에고, 이제 할아버지는 죽어도 소원이 없겠네. 없겠어.”

“할아버지도 말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오래 사셔야지요!”

“요번에도 좋은 일이 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라. 흠흠, 우리가..경복궁에서 줄 을 타게 됐다!”

“예?” “예?”

믿기지 않았다. 민속촌에서 하던 것 만 으로도 감정이 벅차 추스르기 힘들었는데, 궁궐 이라니, 평생 가볼까 말까 한 곳을 들어가다니!!

“전왕폐하 께서도 친히 보신다하니 요번에는 새롭게 꾸며봐야겠다!”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이 채 안됐다. 평소 타던 줄타기 방식을 약간 변형시켰다. 줄위에 서있는 사람의 수를 한명이 아닌 두 명으로 바꾼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재광과 정선이었다. 양쪽에서 재주를 부리며 점점 거리를 좁히고 춤을 추며 상대방의 원래자리로 이동하는 것이다. 서로 충돌하지 않게 조심해야하는 방법이었다. 자자한 소문이 나있는 줄타기의 주인공들인데 실수라도 했다간 왕의 노여움을 사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아랑곳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흐뭇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일주일의 시간은 너무 빠르게 흘러갔다. 모든 일주일이 이렇게만 흐른다면 인생의 시간도 매우 짧을 것 같이 느껴졌다. 역시 궁궐은 천한 천민들이 사는 곳과는 정말 달랐다. 궁궐에서의 하룻

하녀조차도 비단결처럼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엄청나게 큰 쥘과 수많은 신하들, 모든 것이 신기했다. 과연 이곳이 그들이 알고 있던 나라가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정선이 생각하는 집에서 봐왔던 진수성찬은 초라한 밥상에 그쳤다. 상다리가 부서질 정도로 파전과 해물요리 등등 군침이 돌았다.

줄타기가 시작되었다. 이미 줄타기에 집중한 이상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정말 실수하지말자 정선! 난 할 수 있어! 숨을 크게 쉬자!’

‘정선이랑 호흡이 잘 맞아야 될 텐데..’

정선과 재광은 탈을 썼다. 옷도 평소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왔다. 서민들의 실상을 좀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었다. 서민들은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놀고,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이런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할아버지의 바램이었다. 줄타기의 연극은 둘이 양끝의 줄에 올라간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부채를 좌라락 피더니 슬금슬금 서로 가까워져 왔다. 얼씨구- 하는 추임새도 잊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북을 들고 장단에 맞추어 흥을 돋워 주셨다.

“아 이보게 자네-혹시 자네 이름이 정선이던가?”

“아 그런데 왜 그러시오? 아니, 혹시 자네 이름이 재광이던가?”

“얼씨구! 웬수는 외나무다리 에서 만난다더니, 지금은 이 줄에서 만난건가? 내 미 안하지 만 오늘은 내가먼저 가야겠네! 어흠!”

“얼썬! 무슨 소릴 하는 것이냐! 오늘은 내가 먼저 갈 것이야!”

다다다다 서로 줄에서 가까워지더니 부딪힐 거리에서 휘리릭 서로 반대편으로 몸을 젖히고 정선은 원래 재광의 자리에, 재광은 정선의 자리로 왔다. 아찔한 순간의 감정은 궁궐 속 사람들에게도 있었다. 서민들의 반응과 같았지만 조금은 작은 소리로 어우! 소리를 냈다. 왕도 즐거워 했다. 박수를 짹 짹 치고 북소리도 점점 빨라지더니 정선과 재광이 작수목 으로 내려온 순간, 북소리가 멈췄다.

“쉬어-”

정선이 쉬이 소리를 냈다. 다시 줄 위로 올라온 순간 줄타기는 계속되었고, 역시나 궁궐에서도 성과는 대박이었다.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가 실수를 안했다는 것도 신기했고, 궁궐 안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리라 예상을 하지 못했다. 덕분에 궁궐을 나오면서 쥘 안의 음식을 많이 싸서 집으로 갈 수 있었다.

“정선아!! 줄타기는 어떻게 됐니? 잘했지? 떨리지는 않았고? 실수는 안했어?”

“에-엄마! 하나하나 물어봐요, 헛갈려요.”

“이그 정선이 표정 보니까 딱 알겠네! 잘 했구나! 역시 정선이 잘 할 줄 알고 있었 어!”

정선은 경황이 없어 할아버지께 감사하단 말도 까먹었었다. 내일은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에 들었다.

할아버지께 감사인사를 드린 다음날부터 추적추적 질퍽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정선은 엄마의 바느질을 도와줬고, 재광은 요번에 새로 태어난 검둥이와 놀곤 했다. 그 사이 재광은 정선에 대한 사랑이 깊어졌다. 한뼘 별 것 아닌 사춘기라 생각했지만, 점점 여자로 느껴지는 것을 막을 순 없었다. 정선도 마찬가지였다. 어린 시절 부터 항상 같이 지내왔던, 남자로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재광이 갑자기 남자로 보였다. 요즘 들어 키가 부쩍 커진 걸 느꼈다 싶었더니 얼굴의 이목구비도 뚜렷해지고, 약간의 근육이 더 생겼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출 수 가 없었다. 그러나 둘의 사랑이 싹트는 동안 대한 제국은 검은 그림자에 드리워

저 있었다.

하루아침에 일본이 대한제국을 점령한 것이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는데 정선은 재광이와 함께 장터로 나가 줄 할아버지를 찾으러 갔다. 그러나 그날따라 사람이 많이 없었다. 무슨 일이지 하며 마당으로 간 순간, 새빨간 핏줄기가 바닥을 타고 흘러 낮은 지대에 있는 그들의 신발을 적셨다. 불길한 마음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려갔다. 다 끊어진 줄 밑엔 처참하게 피를 흘리고 있는 할아버지가 보였다. 아직 숨이 붙어있었다.

“할아버지!!!!!!이게 무슨 일이에요?!누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죽지마세요-”

정선이 할아버지를 끌어안으며 목 놓아 울었다.

“나..나는..하아..너희드..크이 줄타기..하아!..를 쯔..지켜줬으면..한다...”

서서히 할아버지의 눈이 감겼다. 하늘도 야속했다. 며칠간 내린 것도 모자라 비를 또 퍼부었다. 재광은 막막하고 슬픈 마음이 가득차서 죽을 것 만 같았다. 그때 저 멀리서 군복을 입은 일본인들이 걸어오고 있었다.

“정선아! 우리 피해야 돼! 일본군이야!”

“아아아아흑흑흑흑 안돼 안돼!! 할아버지 놔두고 어떻게 가란 말이야! 안됐다구!! 흑흑! 싫어! 싫어!”

“나도 미칠 것 같이 슬프지만 산사람은 살아야 해! 이러다간 우리까지 죽는다고!”

재광은 애처롭게 흐느끼는 정선을 끌고 곧장 정선의 집으로 갔다.

“우린 절대 죽으면 안돼.. 할아버지랑 약속했잖아? 줄타기 우리가 지켜야지..우리 꼭 지키자.”

“흑흑흑..흑..그래..오후!”

그러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재광이와 정선이 할아버지를 보러 간 사이에 사건이 터졌다. 정선의 엄마가 일본군에게 끌려갔다. 정선의 엄마뿐만이 아니라 재광의 엄마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집의 여자들이 일본군에게 끌려간 것이다. 게다가 무자비한 일본인들은 체격이 건장한 남성을 데려가 탄광촌에서 일을 시켰다. 재광의 아빠가 탄광촌으로 끌려갔다. 부모의 생사도 알 수 없는 슬픈 상황에서 그 둘은 불과 몇 십분 사이에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되었다. 그들 뿐 이 아니라 생체실험이나 탄광촌으로 끌려간 부모의 자식들은 모두 고아가 되었다. 정선과 재광은 어딜 가야할 지 몰랐다. 줄타기로 사용되는 굵은 줄을 가지고 무작정 길을 떠났다. 가는 곳마다 줄타기를 해 돈을 벌려고 애를 썼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할 수 없이 숲속으로 점점 깊숙이 들어가다가 고개를 건넜다. 고개의 중턱에 주막이 있었다.

“주모! 여기 방 하나랑 밥 줘요!”

재광이 얼마 없는 돈으로 방을 빌렸다. 그나마 안심할 수 있었다. 이 주막이 없었다면 얼마나 걸어야 했을지 소름이 돋았다.

“방을 왜 한 개만 빌리는 건데?”

“이 어려운 상황에 돈을 더 내서 방 두 개를 빌리자고? 우리 사정을 알아야지.”

“..하긴..”

밥을 먹고 나서 둘은 생각에 빠졌다. 돈이 무한정 남아있는 것 도 아니고, 일본군이 언제 갈 지도 몰랐다.

“우리가 지금 비록 피치 못 할 사정 땀에 고향을 놔두고 도망 왔어도, 사정이 좀 나아지면 다시 돌아가자..”

나지막한 목소리로 정선이 말했다. 아직도 할아버지가 눈에 어른거렸다. 일본군에게 끌려간 엄마도 그리웠다. 하도 울어서 목소리가 잘 나오질 않았다. 뜨거운 눈물이 양 볼을 타고 턱으



로 흘렸다. 하염없이 자질 구리한 가는 빗방울이 주막의 천막으로 떨어져 가장자리 부분으로 뚝뚝 흘러내렸다. 둘은 국밥을 먹은 후 방 안으로 들어와 이불을 폈다. 한 공간 안에 단 둘이 누워 있었다. 방이 좁아서 그런지 등을 돌려 앉은 재광이와 정선이는 부끄러웠다. 막상 나이가 들어서 같이 잔다고 하니 기분이 묘하기도 했다.

“저..정선아 우리 엄마도 아빠도 너무 갑작스럽게 잃어버려서 많이 놀랐고, 항상 부모님이 우릴 챙겨줬지만 이제 우리끼리 알아서 스스로를 챙겨야해. 그러니깐..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잘 하려면 우선 성..성례부터 치러야 하지 않을까?”

“성례...?서로 부부가 되자고??..우리가 항상 붙어 다니니깐 괜찮기는 한데...그래 알았어. 안될게 뭘있겠어.”

어려운 국내 사정 속에 둘은 둘만의 성례식을 치뤘다. 아무도 축하해 줄 수 없었던 성례였지만 그들은 행복했다. 17이었던 나이는 겨울을 거치고 다시 여름을 거치는 것을 반복하여 10년이 흘렀다. 여기저기 많은 장터를 거쳤고, 조그만 가게를 얻어 과일 장사를 했다. 줄타기를 아예 연습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기술이 생각날 듯 말 듯 했다. 과연 지금 다시 줄 위에 서도 그때처럼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움도 앞섰다. 사실 그동안 아이를 낳을까도 몇 번 생각해 봤지만 아직 강점기 속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가게일도 돈을 벌기 위해 쉬는 날이 거의 없이 빠듯하게 일했다. 그러나 정선은 아이를 가지기를 원했다. 둘이서만 10년을 살았으니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나타나길 바랬던 것이다.

“여보, 이제 우리도 나이도 찼고 항상 둘이서만 생활하는 게 좀 지겨워. 나도 남들처럼 애 키우는 맛에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그동안 일제 강점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강점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깐 우리가 아이를 낳아 정성껏 잘 보살펴 주면 되겠지? 그래도 아이가 클 때쯤에 이 힘든 생활도 끝나나겠지. 그래 그러자.”

그들의 아이는 1년 뒤 9월에 딸로 태어났다.

“여보! 힘을 좀 더 내! 조금만 더! 그렇지! 옳지!”

“...응애 응애!으으으으아앙!”

“하..하..여보! 이쁜 딸이야! 너무 이쁘다! 이렇게 이쁜 딸을 낳아줘서 정말 고마워!”

“애기..애기 보여줘..”

정선이는 아기를 품에 안았다. 무척 조그맣고 온몸이 양수로 인해 붙어있었다. 눈을 감은 게 어찌나 귀엽던지 꼬집어 주고 싶었다. 그녀가 아기를 볼 동안 재광은 옆집에서 미역국을 얻어 오랜만에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주었다. 아기의 이름은 선미로 지었다. 미숙하게나마 한자를 아는 재광이가 선할 선에 아름다울 미를 써서 선미로 지은 것이다. 그 때가 그들의 나이 28세, 일제강점기 11년 때였다.

아직 사정은 많이 좋아지진 않았지만 그들이 있는 가게장터 쪽에도 줄타기를 하는 장소가 있었다. 정선은 감회에 빠졌다. 한때 그녀도 저 줄 위에서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이며 사뿐사뿐 걸어 다녔는데.. 선미가 크면 줄타기를 가르칠 생각이었다. 정선이 아이를 낳으면서 가게일은 재광이가 도맡아 했다. 힘든 일이 많은데도 항상 싱글벙글이었다. 정선은 그런 재광을 항상 고맙게 생각했다. 생각보다 아이는 빨리자랐다. 어버버 하던 어눌한 말도 제법 엄마엄마 소리를 내더니 어느 순간부터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했다. 하루가 지날 수록 키도 커지고 눈도 푹망푹망 해졌다. 역시 아이를 키우면 세월이 빨리 간다더니 엄마가 말했던 말들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선미의 나이가 7살이 되었다. 그동안 하도 바쁘게 살다보니 어떻게 살았는지 재광은



생각할 수 없었다. 가끔 가다 선미가 놀다가 무릎이 까지고 들어오는 날엔 정선의 어릴 적 모습을 닮은 것 같다는 생각도 했다. 어느날 정선은 선미를 데리고 장터 마당으로 나갔다.

“선미야 이게 엄마가 어릴 적에 타고 놀았던 줄타기라는 거야.”

“줄타기?”

“그래, 줄타기. 엄마 어릴 땐 이거 잘 탔어. 선미도 타볼래?”

“응! 나도 타볼래!”

정선은 줄을 낮게 동여매고 선미를 줄 위에 놓고 잡았다. 한발자국씩 조심스럽고 아슬아슬하게 걷는 선미가 대견스러웠다. 그 순간 정선의 발이 삐끗했다. 그녀는 선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 넘어졌다가 바로 일어났다. 그 때 정선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선미가 양팔을 벌려 균형을 유지하고 양 다리를 오자로 벌리고 아슬아슬 서있었다. 약간은 두려움에 섞여 있지만 선미의 입가에는 웃음이 어렸다. 정선은 선미를 데리고 곧바로 재광에게 달려갔다.

“여보, 여보! 우리 선미가 줄타기를 해! 우리 선미가!”

“뭐?”

“아 글썄 내가 발이 삐끗해서 넘어졌는데 선미가 줄 위로 잘 있지 뭐야?! 우리 선미가 재능이 탁월한가봐!!”

그 다음날부터 정선은 선미를 데리고 매일 줄타기를 했다.

“엄마, 줄타기 하는 사람은 모야?”

“줄타기를 하는 사람? 그건 어름산이라고 불러. 어름 위를 걷듯이 아슬아슬 걷는 다는 거랑 비슷해서 그렇게 부르는거야.”

가끔 일본군이 올 때 숨어있을 때 빼고는 항상 마당으로 갔다. 그때마다 선미의 실력은 날로 늘었고, 사람들의 관심도 얻게 되었다. 정선이 피곤해 낮잠을 잘 때면 선미는 조심스레 집을 빠져나와 줄을 타곤 했다. 점점 줄타기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서 선미도 엄마, 아빠의 직업을 물려받아야 겠다고 생각했다. 선미의 나이는 7살에 불과하지만 생각이 어찌나 어른스러운지 이게 정말 7살 꼬마가 맞나 싶을 때가 많았다. 그동안 엄마 정선에게서 그녀가 젊었을 적 줄타기를 어떻게 했는지, 어디에 가서도 해 봤는지, 어떤 기술을 익혔는지 많이 들었다.

‘엄마께서 궁궐까지 가보셨다고?...나도 들어가 보고 싶지만 지금은 일제 강점기라는데, 궁궐을 갈 수 있을까?’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무자비한 일본군들은 한국인들을 잡아가 생체실험을 한 것도 모자라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정신대로 끌려가게해 강간을 했다. 또한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을 데려가 도자기 산업을 발달시켰고, 대한제국 민족의 얼과 정신을 없애기 위해 한글을 사용하지 말고 일본어를 사용할 것을 강요했으며, 한국의 문화유산을 태우거나 없애기 위해 무형문화재의 창시자, 계승자를 죽이기도 했다. 정선과 재광은 일본군으로부터 피해 다니며 조그만 가게를 차린 보람이 있었다. 게다가 줄타기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보, 우리 모험 한번만 더 해보지 않을까?”

“뜬금없이 웬 모험?”

“우리가 예전에 하던 줄타기 말야.. 다시 한 번 해보지 않을까? 힘들겠지만 일본군들을 피해 다니면서 줄타기를 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후에 자손들에게 우리의 줄타기를 계승시키고 싶어. 이렇게 마냥 있다가는 이 나라가 일본한테 지배를 당하게 되면 우리 역사도 뭐고 사라지잖아.. 다른건 몰라도 줄타기는 남기고 싶어..우리 그렇게 하자.”

정선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 눈물은 두 뺨을 적셨다. 재광은 그런 정선의 모습을 보고 반대



할 수가 없었다. 분명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그도 줄타기가 없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결국 재광의 가족은 하늘이 푸르스름한 새벽녘 짐을 간단히 싸들고 집에서 나와 길을 떠돌아 다녔다. 길에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다니다 힘들어 젖을 때였다. 갑자기 선미가 길을 가던 한 청년을 붙잡더니,

“혹시 줄타기 할 줄 알아요? 줄타기 하는 사람을 모으고 있어요.”

순간 어둠이 가득했던 청년의 얼굴에 활기가 돌았다.

“안그래도 사정이 좋지 않아 줄타기를 그만하려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만나게 되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제 동무 중에도 줄타기를 하는 아이들이 여럿 있습니다. 저를 따라 오시죠.”

청년을 따라 숲속을 들어가니 정말 사내 네 다섯명이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을 만나 줄타기를 계승하기 위해 사람을 모아 함께 다닐 예정이라 말했더니 흔쾌히 승낙하고, 정선의 일행이 되었다. 생각보다 어름산이들은 많았고, 그렇게 대략 간추린 단원의 수는 80이 조금 넘었다. 서로 챙기기도 힘들고 음식도 가끔 모자랐으며 걷다가 잠을 잘 수 있는 곳도 거의 없었지만 단원들은 매우 행복했다.

정선이 무엇보다 가장 행복해 했다. 그토록 원하던 어름산이들을 만났고, 서로 모르던 줄타기의 기법도 알려주었다. 줄타기를 계승하기 위해 단원들끼리 성례를 올려 아이를 낳고 키우기도 했다. 그 아이들은 단원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름산이들이 되었다. 비록 나이가 많아 비바람 치는 어둠속에 쓰러지거나 죽는 단원들도 있어 함께 슬퍼했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어 안심하고 숨을 멎을 수 있었다. 그 행복하고 슬픈 날들 속에서 정선은 남몰래 병을 키우고 있었다. 그녀도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다.

그날 밤이었다. 정선의 몸이 심상치 않았다 고열이 오르고 기침을 계속 했다. 재광은 모든 단원들과 선미를 데리고 정선에게 갔다. 정선이 숨을 가쁘게 고르며 말을 했다.

“선미야, 엄마가 만약 죽더라도, 아니 다른 단원들도 나이가 많아 혹여 숨지게 되더라도 니가 저 어린 아이들을 보살피며 꼭 계승해 주길 바란다. 엄마나이가 이제 38이다.. 선미도 벌써 17살이구나.. 어린 너를 끌어안으며 젖을 먹이던 게 엇그제 같더니 벌써 이렇게 처녀가 다 되었구나! 쿵쿵쿵! 하아..엄마는 널 많이 사랑..해..그리고 여보..사실 오래 전부터 좋아했었어요.. 당신과 결혼해서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하아..당신을 놔두고 먼저 가서 죄송해요.. 선미와 다른 단원들..잘 부탁해요..”

재광이 조용히 흐느끼며 정선의 손을 잡고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를 위로 쓸었다.

“걱정 말아요. 흐음 나..나도 당신 많이 좋아했으니까요. 좋은 곳으로 편히 가요.”

“어..엄마!엄마! 호어어영-!!”

정선의 눈이 서서히 감기며 온 몸이 굳어갔다. 그녀가 단원의 단장이라는 것 빼면 항상 있던 단원들의 죽음과 다를 바 없었기에 재광은 조심스래 정선을 땅에 묻고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렸다. 비록 반려자 정선이 없었지만 선미가 있어 안심할 수 있었고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들은 그 다음날부터 항상 줄타기 연습을 했다. 선미는 조금더 어른스러워졌다. 책임감도 더 커진 것을 느꼈던 것일까, 아이들을 친절히 웃으며 가르쳐주었다. 다른 단원들도 새로운 줄타기 기법을 창시하기도 했다.

바람이 선선히 부는 가을이 찾아왔다. 그들은 내혜홀로 돌아왔다. 재광이 어렸을 적 봐왔던 고향의 모습이 아니었어도 왠지 포근했다. 줄타기의 명소, 정선과 재광이의 고향.. 그들은 여기서 큰 천막을 만들어 생활했다. 일본군의 강압도 두렵지 않았다. 내혜홀로 오기 전에 그들은



3.1 운동에 가담했는데, 그 운동에서 살아남는게 더 두려웠었다. 그들은 두꺼운 줄을 10개를 준비해 장터에 10개의 줄타기를 만들어 여러사람이 쓰도록 했다. 재광은 하루하루 모든 것이 즐거웠고 날아갈 듯이 기뻐다. 선미도 어엿한 부인이 되었다. 어름산이의 단원 중 한 청년과 성례를 올렸다.

다음날이 되었다.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장터에서 뽐 낼 날이 왔다. 사람이 200명 가까이 모여들었다. 이많은 사람들은 모두 내혜홀 사람들 이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어디있었는지 신기할 정도였다.

“오늘 연습 잘 한 것 실수하지 말고 잘해 단장!”

“화이팅! 선미도 힘내! 안다치게 조심하고!”

아빠인 재광과 선미의 공연이었다. 재광에게는 21년만에 다시 해보는 공연이었고, 선미에게는 생애 첫 공연이었다. 둘은 부채를 펴고 서로를 쳐다보았다. 북소리가 시작 되었고, 재광과 선미는 줄을 뛰어올라 공중에 몸을 맡겼다.

“얼쭈-!”

마치 하얀 구름이 있는 하늘 속에 그들이 움푹 들어간 것만 같이 보였다. 아찔한 하늘 속으로 빨려들어 갈 것만 같았다. 오랜만에 재광은 호탕하게 웃을 수 있었다. 정선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햇빛이 그날따라 장터를 더욱 밝게 비추었다.